

Question 46

공군에 가도 국가자격증을 떨 수 있다면서요?

공군에서는 장병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 그럼 공군이 장병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, 어떤 면에서 공군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좋은 환경인지 알아볼까요.



공군 병사들은 정기외박 등 타군보다 외부로 자주 나갈 수 있는 여건 덕분에 시험 일정에 휴가를 쉽게 맞출 수 있어 일반인 못지 않게 자격증 시험 응시 기회도 많다.

여가시간의 확실한 보장

공군에서는 병사들의 일과 후 여가시간을 확실히 보장해 주기 때문에, 여가시간만 잘 활용해도 자신이 목표한 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. 주말 여가시간 또한 보장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일요일에 12시간 이상 공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
취득 대상 자격증 60여 종 이상

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,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은 그 종류가 무척 많습니다. 항공산업기사, 굴삭기운전기능사 등 전역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60여 종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




정기 외박·휴가 활용 시험 응시 가능

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을 보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겠지요. 6주에 2박3일인 정기 외박 등 타군보다 자주 나갈 수 있는 여건 덕분에 시험 일정에 휴가를 쉽게 맞출 수 있어 일반인 못지않게 자격증 시험 응시 기회가 많습니다.

수험 정보 및 교육 활동 적극 지원

컴퓨터 프로그래밍, 토익, 한자 검정능력 시험 대비 동아리 등 각종 자격증 관련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또 군내 통신망인 인트라넷을 통해 각종 수험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.

이와 함께 응시자 중심의 교육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. 종목별 자격 보유자와의 결연을 통한 1:1 교육은 물론, 부대 인근 직업훈련원 및 전문학원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장려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